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11-398)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신탁W호(주식)

2011년 10월

Fund Facts

투자 목적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중 고배당 종목을 위주로 투자하여 주가상승 이익과 배당이익을 함께 추구하며, 커버드콜전략의 실행을 통한 콜옵션 매도 수입의 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개시일	2004-07-23
펀드 규모	842 억원
총보수	▣A1:1%선취+연2.22% ▣A2:연2.095% ▣A3:연1.97% ▣A4:연1.845% ▣A5:연1.72% ▣ I: 연0.72% ▣ Ce:연1.62%
환매수수료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블루칩배당W호(주식)	4.38%	-14.56%	-18.55%	-4.76%	142.00%
참고지표	5.96%	-7.68%	-9.03%	2.29%	126.29%
초과수익률	-1.58%	-6.87%	-9.51%	-7.05%	15.71%

*참고지표: KOSPI변동률*75%+CD금리변동률*25%,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A 기준임.

수익률 추이

(2004.07.22~2011.10.31)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0월 펀드 수익률은 4.38%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5.96% 상승한 참고지표 대비 약 1.58%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종합주가지수가 유럽 리스크 완화 기대감으로 7.88% 상승했으나, 상승을 주도했던 IT, 은행 등 일부 업종의 펀드내 편입비중이 낮았던 점이 수익률 부진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10월 증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과 은행업종, 게임, 인터넷, 미디어 등 개별 테마성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펀드내 편입되지 않았던 일부 화학, 건설, 유통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 펀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IT, 은행 비중이 낮게 유지했던 가운데, 중장기 성장성과 안정성 기대감으로 편입한 CJ E&M, GKL, BS금융지주 등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점이 수익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0월 종목별 수익률 기여도는 현대미포, LG화학, KT&G, LG패션, 고려아연, 카프로 등이 높았으며, 삼성엔지니어링, 세아베스틸, 대림산업, 기아차, CJ E&M, 현대위아 등 소재, 산업재와 일부 내수 업종 종목의 기여도가 낮았습니다.

주식시황

10월 종합주가지수는 급반등하여 1,909pt로 마감되었습니다. 유로존 각국들이 재정 위기에 대해 은행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고, 10월 말에 열렸던 EU 정상회담에서 대책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3분기 GDP 등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더블딥 우려감을 낮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는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큰 반등을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건설, 화학, 철강, 운수창고 등 소재 및 산업재 업종과 삼성전자와 은행, 증권 등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통신, 유통, 음식료, 의약품과 같은 저베타 업종군을 중심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펀드에서 현물주식은 88% 이상의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보유분의 80% 수준은 블루칩 배당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중 고배당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보유분의 20%는 중소형 고배당 종목 중에서 엄선한 마이다스고배당주로 구성됩니다.

①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

블루칩 배당포트폴리오 중에는 현대미포조선, LG화학, KT&G, S-Oil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고려아연, 롯데쇼핑, 기아차 등의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지난 달은 엔씨소프트, 현대글로비스 등 경기 방어종목군에 대해 신규 편입 및 비중을 확대했으며, 반등폭이 컸던 NHN, SK C&C와 GS, S-Oil 등 경기 민감 업종인 소재, 산업재의 비중을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② 마이다스고배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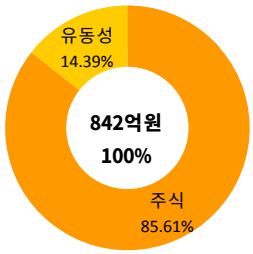
마이다스 고배당주 중에는 LG패션, 카프로, CJ오쇼핑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CJ E&M, 세아베스틸의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지난 달 신규편입한 종목은 파라다이스, 대상 등 이었으며, 하락폭이 컸던 세아베스틸, 골프존의 비중을 소폭 확대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월 만기 콜옵션은 행사가격 260에 매도 하였습니다. 이후 10월 옵션 만기일 KOSPI200지수가 238.09로 종료됨에 따라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수입을 펀드 수익으로 실현하였습니다. 2011년 11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57.5를 매도하였으며, 11월 만기 주가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11.10.31 기준]



상위보유종목

[2011.08.31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50.10%)

1. 삼성전자
2. 기아차
3. 호남석유
4. 삼성엔지니어링
5. 현대차
6. LG화학
7. 현대중공업
8. GS
9. 현대해상
10. S-Oil
11. 현대모비스
12. 신한지주
13. KB금융
14. 현대차2우B
15. 삼성SDI
16. 롯데쇼핑
17. 현대미포조선
18. 대우인터내셔널
19. BS금융지주
20. 현대그린푸드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